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異本) 비교

Comparison with the Alternative Versions of the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송 정 숙(Jung-Sook S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각편의 구조 분석 |
| II. 전래동화의 성격 | 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비교 |
| III. 전래동화의 구조 | 1. 각편의 비교 |
| I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분석 | 2. 원문의 비정(比定) |
| 1. 각편의 줄거리 | VI. 결론 |

초 록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래동화는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즉 어느 책의 본문이 가장 좋을지가 늘 의문이었다.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원문서지학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을 비평하였다.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 6편을 대상으로 줄거리 파악을 통해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목, 배경, 등장인물, 문체, 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6편의 이본 가운데 어효선본의 본문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어효선본에서 조력자인 옥황상제를 하느님으로 바꾸고, 문체를 구어체로 바꾸며,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서로 바꾸는 마지막 장면을 삭제한다면 이상적인 원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문서지학적인 연구가 축적되고, 이러한 역량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사서가 내용, 즉 콘텐츠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 이본 비교, 원문서지학, 기능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text of six alternative versions of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So the author took a textual bibliographical study of those version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itles, backgrounds, characters, styles and functions of them.

On the basi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version of Hyo-Sun Eu was selected as a good text. In the version of Hyo-Sun Eu, if the helper in the story, King of Heaven represented in the form of Taoism would change into Heaven represented in the form of God, and the literary style change into the colloquial style, and the last scene that the Sun Brother turns to the Sun Sister and the Moon Sister to the Moon Brother would be removed, this version will be the best one.

Key Words: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Textual Bibliography, Comparison of Alternative Versions, Functio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2005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가 동화라면 모든 창작동화의 어머니는 옛이야기인 전래동화이다. 독일의 괴테는 내가 인생에서 불변의 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슈트라우스베르크 대학에서가 아니라,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던 옛날이야기 속에서였다고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는 <모모타로[桃太郎 : 복숭아 도령]>¹⁾인데, 1915년에 출판된 이와야[嚴谷小波]의 「모모타로의 교육신문」을 국민정신교육의 근본으로 삼은 이후, 이 동화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모모타로 노래까지 나와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동화로 숭상되었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진보적 문화인들은 ‘모모타로 말살운동’을 벌였다. 이 이야기가 일본인을 호전적·침략적인 자본주의·제국주의자로 만들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²⁾ 이처럼 전래동화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린이에게,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화작가로 유명한 그림형제는 1837년에 “인간의 상상력은 동화를 통해서 모든 제한과 제약을 넘어서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했다. 동화는 놀라운 것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성향에서 생겨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현실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을 뛰어넘고, 그리고 완고한 합목적성과 진부한 유용성의 사고에 정면으로 반항한다. 상상력이 있는 곳에는 종종 극단적인 요소들이 공존한다. 하지만 동화의 세계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은 그저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시대를 반영한다. ‘동화’라는 단어가 독일어의 ‘maere(소식, 기별)’에서 기원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³⁾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구비전승되어 왔으며,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구전설화를 재창작한 것인데, 설화 즉 이야기를 구연하는 사람은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을 더해서 전달하므로 다양한 각편이 존재한다. 텍스트가 유동적인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재창작된 전래동화 역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게 된다. 사서나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전래동화책을 선정할 때 같은 줄거리의 다양한 책이 존재하므로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원용한 연구방법은 원문서지학의 연구방법으로 마스(Paul Maas)가 19세기 독일의 문헌학자인 라흐만(Karl Lachmann)의 문헌비평의 2단계법인 ‘음미’와 ‘개량’을 좀더 세분화한 문헌비평의 5단계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헌이 전래하는 것일까를 조사하여 ‘음미’한 다음, 전래하는 문헌이 과연 원본적일까의 여부를 분석하는 ‘시험’에서, 원본적인 것을 ‘예측’해서, 그것 중 바람직한 문헌을 ‘선택’하면, 원문이 ‘개량’된다는 것이다.⁴⁾ 전래동화는 작가가 창작한 원본에 바탕

1) 줄거리는 복숭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가 도깨비섬을 정벌하고 보물을 약탈하여 오는 무용담으로, 일본 에도(江戸) 초기에 완성되었다.
 2) 손동인, “한국 전래동화의 상민성 고찰,” 국어국문학회 편, 설화연구(서울 : 태학사, 1998), p.46.
 3) 요아힘 발터, “산책으로의 초대,” 김재혁 역, 환상의 정원(서울 : 책세상, 1994), pp.4-5.
 4) 류탁일, “문헌비평의 방법,” 한국문헌학연구(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9), pp.418-419 참조.

을 두었다기보다는 공동작인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재창작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전래하는 이본들 가운데 어느 문헌이 원본적일가를 분석하기보다는 어느 문헌이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바람직한 문헌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 6편을 대상으로 줄거리 파악을 통해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목, 배경, 등장인물, 문체, 기능을 비교분석한 후, 이본들 가운데 바람직한 원문을 선택하고, 원문을 개량하여 이상적인 원문을 비정(比定)⁵⁾해 보고자 한다.

II. 전래동화의 성격

설화 중 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을 전래동화라 한다면, 전래동화는 설화의 일부이고, 설화는 구비문학의 한 분야이다.⁶⁾ 구비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으로서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고, 말로 전승되는 문학이다. 둘째, 구비문학은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 등으로 이루어진 말하는 방식이 문학적 표현의 목적에 맞도록 조직되는, 즉 구연(口演)되는 문학이다. 셋째, 구비문학은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공동작의 문학이다. 구연은 있는 것의 전달이 아니라 창작이기 때문이다. 넷째, 구비문학은 공동작이므로 단순하고 보편적이다. 다섯째, 구비문학은 민중의 생활, 경험, 의식,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민중적이며, 따라서 민족적인 문학이다. 이처럼 구비문학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이기에 생활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지닌 문학을 사실상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래동화와 설화가 동일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래동화는 설화에서 출발한 '어린이용' 이야기로서 구전설화의 재창작품이다. 근대 이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 즉 옛이야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를 기점으로 어린이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어린이관이란 어린이의 본질이나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말한다. 이는 문화에 따라 다르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양육 및 교육, 처우 등을 결정하는 직·간접적인 기초가 된다.⁸⁾

5) '비정(比定)'은 '어떤 미상(未詳)의 물체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물체와 비교하여 그 성질을 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본을 비교함으로써 이상적인 원문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복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작가가 존재하고, 그가 쓴 원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신서지학에서 셰익스피어 연구는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 정본이고, 과학적인 탐사를 통해 원본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종숙, "Henry V와 Shakespeare의 미증적 관점들 : 서지학/원문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위하여", 셰익스피어비평(한국셰익스피어학회) Vol.23(1993), p.211) 그러나 전래동화의 바탕이 되는 구전설화는 작가가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작가가 쓴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텍스트가 유동적이다. 전래동화는 유동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재창작했기 때문에 전래동화에도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이본들을 비교분석하여 이상적인 원문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복원'보다는 '비정'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6) 구비문학에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가 포함된다.

7) 장덕순 등, 구비문학개설(서울 : 일조각, 1988), pp.14-15.

서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는 『아동의 세기(Centuries of Childhood)』에서 어린이시기의 독자성에 대한 관념이 17세기를 전후하여 결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세 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는 단지 작은 인간, 즉 ‘축소된 어른’으로 이해될 뿐 어린이 시기의 독자성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부르조아 계급의 형성과 더불어 도시사회에서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어린이시기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중세의 절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은 다시 사회 속으로 규율화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가족이 등장하였고, 그 가족 속에서 어린이들이 바로 한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아이들을 위한 의상, 놀이, 교육적 실천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⁹⁾

조선시대의 어린이관은 장유유서(長幼有序)에 기초하여 어른에 대한 복종과 예의를 절대덕목으로 삼았다. 그러한 어린이관은 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선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획기적인 변화는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말에서 ‘이’라는 접미사는 늙은이, 높은이, 착한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어린이를 “어린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방정환은 ‘아이’라고 하면 귀찮고 천해 보이고 아무렇게나 대해서도 관찮을 듯한 생각이 들지만, ‘어린이’라고 부르면 웬지 그들이 존귀하고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고, 언어의 힘은 총칼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그는 일제하의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이자 인식전환운동으로서 ‘어린이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 사람들을 터줏대감으로 믿고 거기다 정성을 바쳐야 새 운수가 온다”고 역설하였다. 당시 일제의 통치는 어린이들에게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력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1920년대 이후 아동노동자수는 급증하였으며, 아동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재해, 질병,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소년운동을 벌였다.¹⁰⁾

위에서 살펴듯이 우리가 흔히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어린이’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발견된 역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옛이야기인 전래동화도 근대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동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 초의 일이다.

8) 김보영, “‘아이’에서 ‘어린이’로”,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 사람과 사회 이야기(서울 : 역사비평사, 1998), p.175.

9) Philippe Ariès, *Centuries of Childhood :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R. Baldick (trans), Vintage Books, 1962. ‘아동’과 ‘문학’이 근대에 ‘발견’된 개념임을 밝히는 논의로는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역)의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1997)을 참고할 수 있다. 엄회경,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호랑이상,” 동화와 번역(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제5집(2003), p.6 재인용; 김보영, 윗글, pp.175-176.

10) 김보영, 전게서, pp.178-183.

Ⅲ. 전래동화의 구조

전래동화는 설화를 어린이에 맞게 변용한 것이므로 전래동화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배열되어 있는 양태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에 배열되어 있는 각 부분들이 일련의 법칙을 갖고 연결된다면 비로소 구조를 가진 전체가 된다. 어떤 구조물에 있어서 서로 이웃해 있는 요소들은 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구조를 분석하면 변할 수 없는 것, 즉 본질적인 것을 변할 수 있는 것, 즉 종속적인 것과 구별할 수 있다.

설화로부터 이러한 구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은 러시아의 프로프(V. Propp)에서 시작했으며, 1928년 「민담의 형태학」에서 프로프는 전혀 다른 모티브들로 되어 있으면서도 구조가 동일한 것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의 '잉어 색시'와 '선녀와 나무꾼' 두 전래동화의 구조를 살펴보자.

〈표 1〉 잉어색시와 선녀와 나무꾼의 구조 비교

〈잉어 색시〉	〈선녀와 나무꾼〉
① 어부가 잉어를 잡았다가 놓아준다.	① 포수에게 쫓긴 사슴을 나무꾼이 숨겨준다.
② 잉어는 처녀로 화하여 어부의 아내로 된다.	② 선녀의 깃옷을 감추고, 승천 못한 선녀와 결혼한다.
③ 자녀를 가진다.	③ 자녀를 가진다.
④ 목욕 도중 엿보지 말라는 타부를 어긴다.	④ 이들을 셋 낳기 전에는 깃옷을 주지 말라는 타부를 어긴다.
⑤ 처는 불신을 책망하고 자녀와 함께 돌아간다.	⑤ 선녀는 깃옷을 입자 자녀를 데리고 올라 간다.
⑥ 돌아온 용녀와 함께 어부도 같이 간다.	⑥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여 선녀와 재회한다.

위 전래동화는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는 동일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가변적이거나 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는 불변적이다. 등장인물은 구조를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없으나 불변적인 행위 자체는 구조를 형성한다.¹¹⁾

프로프는 불변적인 기본적 요소를 기능(function)이라고 하는데, 그의 구조분석에 의하면, 민담에서 등장인물의 기능의 수는 31개로 다음과 같다. 이는 각 기능의 본질에 대한 간결한 요약과 한 단어로 단순화한 정의로 표시된다.¹²⁾

1.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재중이다. 정의: 부재
2. 주인공에게 금지의 말이 주어진다. 정의: 금지
3. 금지가 위반된다. 정의: 금지의 위반
4. 악한은 정찰을 시도한다. 정의: 정찰

11) 曹喜雄, 說話學綱要(서울 : 새문사, 1989), pp.50-51.

12)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역(서울 : 새문사, 1987), pp.30-67.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5. 악한은 그의 희생자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한다. 정의: 정보전달
6. 악한은 희생자나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속이려 든다. 정의: 속임술
7. 희생자는 속임술에 빠져서 본의 아니게 그의 적을 돕게 된다. 정의: 연루
8. 악한이 가족 중의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힌다. 정의: 가해
- 8a.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거나 갖기를 원한다. 정의: 결핍상황
9. 불운이나 혹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소망이 알려지고, 주인공에게 부탁과 명령이 전달되며, 사람들은 그를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가게 한다. 정의: 증개, 연결된 사건
10. 탐색자는 대항행동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결심한다. 정의: 대항행동 개시
11. 주인공이 집을 떠난다. 정의: 출발
12. 주인공이 시험되고, 심문받으며, 공격받는데, 그로 인해 주인공이 마법도구를 취득하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조력자를 얻는다. 정의: 증여자의 첫 기능
13. 주인공은 미래의 증여자의 행동에 반응한다. 정의: 주인공의 반응
14. 주인공이 마법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의: 마법도구의 수령
15. 주인공은 탐색의 대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거나 인도된다. 정의: 두 왕국 사이로의 공간 이동이나 안내
16. 주인공과 악한이 직접 싸운다. 정의: 투쟁
17. 주인공은 징표를 받는다. 정의: 징표, 표식
18. 악한이 퇴치된다. 정의: 승리
19. 최초의 불행이나 결여가 해소된다. 정의: 불행 또는 결핍의 청산, 해소
20. 주인공이 돌아온다. 정의: 귀환
21. 주인공이 추적당한다. 정의: 추적
22. 주인공이 추적자들로부터 구출된다. 정의: 구조
23. 주인공이 아무도 모르게 집이나 다른 나라에 도착한다. 정의: 몰래 도착
24. 가짜 주인공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 정의: 부당한 요구
25. 주인공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 정의: 시험, 어려운 과제
26. 과제가 해결된다. 정의: 해결
27. 주인공이 알려진다. 정의: 인지(認知)
28. 가짜 주인공, 혹은 악한의 정체가 폭로된다. 정의: 자백, 폭로
29. 주인공에게 새로운 모습이 주어진다. 정의: 변신
30. 악한이 처벌된다. 정의: 처벌
31. 주인공은 결혼하고 왕좌에 오른다. 정의: 결혼

위의 31개 기능이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영역을 이루며, 이 전체 영역은 기능을 수행하는

등장인물과 대응된다. 그것이 행동영역이다. 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영역이 있다.¹³⁾

1. 악한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악한 행위 ; 주인공과의 싸움이나 기타 투쟁 형태
2. 증여자(공급자)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마법도구를 전달하기 위한 예비 교섭 ; 주인공에게 마법 도구를 공급함
3. 조수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주인공의 공간 이동 ; 불행이나 결여의 해소 ; 추적으로부터 구출함 ; 어려운 과제의 해결 ; 주인공의 변신
4. 공주(찾으려는 인물)와 그녀 부친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어려운 과제를 부과함 ; 표식하기 ; 폭로 ; 인지 ; 두 번째 악한 별주기 ; 결혼
5. 파견자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파견
6. 주인공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탐색에의 출발 ; 증여자의 요구에 반응 ; 결혼
7. 가짜 주인공의 행동 영역.

그런데 이러한 행동 영역이 등장인물과 정확히 대응할 수도 있고, 한 인물이 몇 가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하나의 행동 영역이 여러 등장인물에 할당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설화는 31개의 기능과 7종의 등장인물의 행동영역과의 조합이다.

I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분석

구전설화는 구연자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가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구연자의 기억의 정도나 전승 범위에 따라 다양한 각편이 존재한다. 전래동화도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므로 다양한 각편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대표적 이본인 오다쇼고(小田省吾)의 <虎の天罰(천벌 받은 호랑이)>, 어효선의 <해님 달님>, 이원수의 <해님과 달님>, 김성도의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 이원수·손동인의 <해님과 달님>, 강태형의 <해님과 달님>의 6편의 이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각편의 줄거리

가. 오다쇼고(小田省吾)본 : 虎の天罰(천벌 받은 호랑이)¹⁴⁾

한국의 전래동화가 처음으로 동화집으로서 편찬된 것은 1924년 9월에 발행된 朝鮮民俗資料 第二篇『朝鮮童話集』이 최초이다. 이 『조선동화집』에 게재된 25편의 전래동화¹⁵⁾ 가운데 <해님과

13) 블라디미르 프로프, 상계서, pp.82-84.

14)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주, 조선동화집: 우리나라 최초 전래동화집(1924년)의 번역·연구(서울 : 집문당, 2003), pp.136-140.

달님>은 <虎の天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천벌 받은 호랑이(虎の天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옛날,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두 오누이를 키우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굶은 일을 하였고, 아이들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2. 오늘도 또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러 이웃마을로 가며,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콩죽으로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3.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 산을 넘는데, 이 길은 무언가 소름끼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4. 갑자기 큰 바위 그늘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그걸 여기 내려놓으면 살려준다고 하기에 어머니는 콩죽이 담긴 그릇을 던져 놓고 도망쳤습니다.
5. 호랑이가 또 쫓아와서 오른팔을 떼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오른팔을 내주었고, 또 나타나 왼팔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왼팔을 내주었습니다.
6. 호랑이가 또 쫓아와서 왼발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다리를 잡아먹히면 집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울며 주저앉자,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7. 그래도 호랑이는 양이 차지 않았는지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생각하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8.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호랑이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목이 쉬어서 그렇다고 하고, 손도 엄마 손이 아니라고 하자 호랑이는 먼지를 뒤집어써서 더러워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 호랑이가 손에 기름을 칠하고 손을 다시 내밀자, 여동생이 그 손을 엄마 손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들어온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10. 엄마옷을 입었지만 엄마가 아니란 것을 알아차린 아이들은 무서워서 변소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밖으로 나와서 우물 옆에 있는 계수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1. 호랑이는 아이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무심코 들여다 본 우물에서 아이들이 비친 모습을 보고는 나무 위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15) 『조선동화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水中の珠(물 속의 구슬), 2. 猿の裁判(원숭이의 재판), 3. 瘤とられ・瘤もらひ(혹 떼이기, 혹 받기), 4. 酒きらひの兎と龜と蟾(술이 싫은 토끼와 거북과 두꺼비), 5. 寒中の覆盆子(한 겨울의 산딸기), 6. 黒い玉と黄い玉(검은 옥과 붉은 옥), 7. 狹い兎(교활한 토끼), 8. 物いふ龜(말을 하는 거북이), 9. 天女の羽衣(선녀의 날개옷), 10. 馬鹿の物しり(바보 짐쟁이), 11. 龜のお使い(심부름꾼 거북이), 12. 蟾の報恩(은혜 갠 두꺼비), 13. 物好きな盲者(이야기 좋아하는 장님), 14. 鵲の鐘つき(종을 친 까치), 15. 三つの珠(세 개의 구슬), 16. 恩知らずの虎(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17. 親を捨てる男(어머니를 버린 남자), 18. 蛙と狐の智慧くらべ(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 19. 金棒銀棒(금방망이 은방망이), 20. 哀れな兒(불쌍한 아이), 21. 臆病な虎(겁쟁이 호랑이), 22. 三つの寶(세 개의 보물), 23. 大蟹退治(큰 게를 물리친 돼지와 곰), 24. 虎の天罰(천벌 받은 호랑이), 25. 怒夫と興(夫놈부와 흥부).

12. 호랑이가 올라가는 방법을 오빠에게 묻자 영리한 오빠는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 없자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어려 생각이 부족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올라왔다고 대답했습니다.
13.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자 오누이는 하느님께 “제발 불쌍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14. 하늘에서 새 밧줄이 내려오자, 밧줄을 붙들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5. 호랑이도 아이들과 똑같이 기도하자 낡은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습니다.
16. 호랑이가 떨어진 곳에는 수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줄기에 호랑이피가 물들었습니다. 그 뒤로 수수의 줄기가 빨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7.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 어효선본 : <해님 달님>¹⁶⁾

1. 아주 먼 옛날, 외로운 산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어린 두 남매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매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마음씨 착한 세 식구는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2. 그날도 어머니는 남매에게 “문 꼭 닫고 집 바라. 낯선 사람에겐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호랑이가 사람 시늉을 하고 마을로 내려 온다더라”고 타이르고, 이른 새벽 열 고개 넘어 부잣집에 일을 해 주러 집을 나섰습니다.

16) 어효선 채집, “해님 달님,”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 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 6(서울 : 일지사, 1982), pp.5-14.